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신규 주택 착공/신청 건수 하락
- Bloomberg: 미 연말 여행 시즌에 폭풍 휘몰아친다

[미국 금융]

- WSJ: 연방의회, 401(k) 은퇴 플랜 손질한다
- CNN Business: 웰스파고는 부당한 압류 행위 등으로 17억불을 부과받아

[한국 관련 EV 보조금 이슈]

- WSJ: 미 EV 보조금 시행령, 3월에야 발표된다
- CNBC: 자동차 업계, EV 보급에 대해 작년보다 시큰둥 반응

[글로벌 경제]

- WSJ: 일본은행, 기준 금리 올려 엔화 급등

[공급망]

- Bloomberg: 글로벌 공급망, 과잉수요 완화 후 '골칫거리' 시달려

[오일]

- Bloomberg: 파이프라인 폭파 불구, 러시아 천연가스 유럽행 피해 없어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투자자와 대기업 CEO들, 내년 경제에 엇갈린 반응 엇갈려
- WSJ: 테크 기업들, 반독점 규제 법안 막기 위해 1억 이상 지출
- CNBC: 타켓, 올 연말 "가성비" 제품으로 승부 건다
- CNN Business: 3M, 2025년부터 유해한 '영구 화학물질' 생산 중단
- CNN Business: "실험실 고기", 식탁에 오른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Housing Starts, Permits Fall on Slide in Single-Family Homes

신규 주택 착공/신청 건수 하락

- 11월 들어 신규 미 주택 건축 건수가 줄어드는 데다 건축 허가 건수가 급락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집을 사기 힘들고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관련 차용 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 오늘 화요일 연방 정부 발표에 따르면 11월 주택 착공 건수가 0.5% 줄어 연간 1백43만채로 나타났다. 단독 주택 착공은 연간 82만8천채로 지난 2020년 이래 가장 낮았다.

- 특히, 향후 건축이 활발할지 감지할 수 있는 이른바 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11.2%나 줄어든 연간 1백34만채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건축 허가는 7.1% 감소, 2020년 이래 가장 약했다.
- 한마디로 모기지율이 높아 수요를 줄여 전반적인 주택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원자재값도 올라 건축업자들이 마진을 얻는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구매자를 '유혹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것.

Bloomberg 기사

Bloomberg: Winter Storm Rattling Busy US Travel Season With Cold and Snow

미 연말 여행 시즌에 폭풍 휘몰아친다

- 시카고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눈보라, 텍사스와 미 중앙 지역 남북의 대평원인 그레이트 플레인스는 한랭 전선으로 매서운 추위를 겪게 된다.
- 겨울 폭풍이 미 중부를 강타하면서 바쁜 연말 홀리데이 시즌에 항공 여행을 흔들게 된다는 것이다.
- 몬타나에서 알라바나, 시키고는 시간당 89킬로의 강풍으로 20센티의 눈이 내린다. Erie 호와 오타리오 호의 동쪽에도 폭설이 동반한다. 당연히 항공기 지연 또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Big Changes to 401(k) Retirement Plans Move Ahead in Congress 연방의회, 401(k) 은퇴 플랜 손질한다

- 연방의회가 은퇴 플랜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는 중이다. 미국인들이 은퇴 목적으로 더 많이 저축하도록 하고, 또한 은퇴 저축을 더 오랫동안 손대지도 않고 과세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다.
-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은 미국인이 과세 유예(연기) 퇴직 계좌(tax-deferred retirement accounts)에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해야 하는 연령을 72세에서 75세로 높인다.
- 또한 고령 근로자를 위한 퇴직 저축 기여금 한도(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 limits)를 늘리고, 중저소득층이 은퇴 후 저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제공한다. 그리고 더 많은 고용주가 401(k) 플랜 내에서 비상 저축 계좌(emergency savings accounts)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WSJ 기사

CNN Business: Wells Fargo fined \$1.7 billion for 'illegal activity' including unjust foreclosures, vehicle repossessions

웰스파고는 부당한 압류 행위 등으로 17억불을 부과받아

- 미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은 Wells Fargo의 "불법 활동"으로 17억불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 소비자 1천6백만명에게 수년 동안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반복적으로 대출금(loan payments)을 잘못 적용하고, 주택을 부당하게 압류하고, 불법적으로 차량을 압류하고, 수수료와 이자를 틀리게 평가하고, 갑작스런 당좌 대월 수수료(overdraft fee) 청구 행위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같은 불법 행위 보상금으로 20억불을 지불하고 이에 덧붙여 17억불의 벌금 부과를 명령받았다.

CNN Business 기사

[한국 관련 EV 보조금 이슈]

WSJ: U.S. Delays Key Step for EV Subsidy Program After Foreign Pushback

미 EV 보조금 시행령, 3월에야 발표된다

-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 월요일에 EV 보조금 조치 관련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차별적이라고 저항하는 상황에서 보조금 혜택의 상세한 시행령을 연기키로 했다.
- 소관 부처인 연방 재무부는 올해 말에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3월에 발표하기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올해 연말까지 배터리 관련 '임시 시행령'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제조업체가 세금 공제 대상 전기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터리 요구 조건 관련 "예상 방향에 대한 정보"(information on the anticipated direction" of the battery requirements)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정보가 가능한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 3월에 새로운 배터리 요구 조건이 나오면 효력은 그 이후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나와 있는 대략적인 방안: The new rules require EVs to have at least 40% of their critical minerals for batteries sourced in the U.S. or countries that have free-trade agreements with the U.S., starting in 2023. That threshold is set to rise to 80% by 2026.

- At least 50% of the components in the batteries must be manufactured or assembled in North America by 2024, with that percentage rising gradually to 100% by 2028.

WSJ 기사

CNBC: Auto executives are less confident in EV adoption than they were a year ago

자동차 업계, EV 보급에 대해 작년보다 시큰둥 반응

- 자동차 업계의 경영자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대해 작년보다 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 KPMG가 9천명의 글로벌 자동차 업계 관리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76%는 인플레이와 고금리로 내년에 비즈니스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답변자는 84%로 오히려 더 많다.
- 특히 향후 2020년까지 전 세계의 전기 자동차 보급과 관련, 작년에 입장은 EV 판매량이 전체 신차 비율 중에 10~40%라고 했다. 이는 작년 답변인 20~70%보다 훨씬 적다.

CNBC 기사

[글로벌 경제]

WSJ: Bank of Japan Lets a Benchmark Rate Rise, Causing Yen to Surge

일본은행, 기준 금리 올려 엔화 급등

- 기준 금리를 전격적으로 0.25%에서 0.5%로 올렸다. 엔화 가치를 올리고,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은 오랜 기간을 끝낸 것이다.
- 일본중앙은행은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예전의 상한선인 0.25%에서 최대 0.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2016년부터 벤치마크 국채 수익률의 목표 범위를 0 근처로 설정했으며 이를 전체 시장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WSJ 기사

[공급망]

Bloomberg: Global Supply Chains Face 'Hangover' as Excess Demand Softens

글로벌 공급망, 과잉수요 완화 후 '골칫거리' 시달려

- 항구 혼잡이 조금씩 완화되고 운송 요금이 내려가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은 지난 2년간의 전 세계적 운송 정체, 배송 차질, 부품 부족에 의한 '숙취'에 시달리고 있다.
- 많은 업계에서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멕시코와 같은 다른 지역으로 제조업 시장을 이동하고 있다. 또 분석가들은 늘어난 재고와 상품 수요 감소가 내년 무역 금융에 오버슈팅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 한편 HSBC에 따르면 세계 무역 성장률은 올해 6.1%에서 내년 1.1%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2023년 전 세계 해운 컨테이너 물동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겠지만 공급망은 여전히 혼란스러울 전망이다.

Bloomberg 기사

[오일]

Bloomberg: Russian Gas Flows to Europe Unaffected After Pipeline Blast 파이프라인 폭파 불구, 러시아 천연가스 유럽행 피해 없어

-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해 러시아로 향하는 파이프라인이 폭발했다.
- 위치는 모스크바 동부쪽Chuvashia.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 현재 잘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 한편 유럽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언제 중단할지 우려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Investors, Big-Company CEOs Split on Economic Optimism, Survey Says 투자자와 대기업 CEO들, 내년 경제에 엇갈린 반응 엇갈려

- Teneo Holdings LLC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CEO들이 투자자나 중견기업 CEO들보다 내년 세계 경제를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CEO의 3분의 2가 향후 6개월간 고객 수요, 산업 상황, 자본 접근성, 국내/국외 성장의 악화를 예상했으나, 투자자와 중견기업 CEO의 3분의 2 이상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 현재 탈세계화(degloabalization) 흐름과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대기업이 짊어진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다.

- 반면 투자자들은 “악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있다”는 반응이다.
- 전반적으로 미국에 본사를 둔 CEO들은 중견기업 CEO들의 낙관적인 반응에 힘입어 4분의 3이 향후 6개월 전망을 좋게 보았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대다수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았다.
- 분야별로 보면 금융 및 전문 서비스, 기술, 소비재 분야가 더 낙관적으로 전망했고, 제조업과 에너지 분야는 악화를 예상했다.
- 한편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2023년 상반기 미국 경제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1년간 경기 침체 가능성은 약 63%로 7월의 49%보다 높아졌으며, 2020년 7월 이후 50%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WSJ 기사

WSJ: Tech Companies Make Final Push to Head Off Tougher Regulation 테크 기업들, 반독점 규제 법안 막기 위해 1억 이상 지출

- 연방거래위원회와 노동부 등이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소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와 반독점 규제 강화 등의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테크 기업들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다.
- 이 기업들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 반대 광고와 로비 등에 2021년 초부터 약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모두 이러한 대응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노력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내년에도 여전히 규제 위험에 직면해 있다.

WSJ 기사

CNBC: Target hopes value-hungry shoppers will come to the rescue this holiday season

타겟, 올 연말 “가성비” 제품으로 승부 건다

- 타겟이 지난 3분기 동안의 실망스러운 실적에 이어 4분기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판매가 둔화되면서 재고 과잉으로 수익이 떨어졌다. 인플레이에 지친 소비자들은 월마트와 같은 할인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타겟의 주가는 올해 들어 37% 이상 떨어졌다.
- 타겟은 이번 연말 “가성비” 상품으로 승부수를 걸었다. 더 다양한 브랜드와 계약을 맺고 저렴한 선물 세트를 홍보하며 쇼핑객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하지만 타겟이 잘못된 시기에 임의 소비재에 큰 배팅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타겟의 연간 매출 중 약 20%만이 식료품에서 나오며, 나머지는 기타 임의재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공급망 완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수요가 줄면서 너무 많은 재고를 가지게 된 것이다.

CNBC 기사

CNN Business: 3M will stop making hazardous ‘forever chemicals’ starting in 2025

3M, 2025년부터 유해한 ‘영구 화학물질’ 생산 중단

- 포스트잇 노트와 스카치테이프를 생산하는 대기업인 3M이 2025년 말까지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는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의 제조를 중단할 예정이다.
- “영구 화학물질”로 알려진 PFAS는 수많은 가정용품을 물, 열, 기름으로부터 코팅하는 데에 사용된다. 최근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초기 연구보다 인간에게 훨씬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3M이 사용 중단을 결정한 것.
- 3M은 PFAS의 사용 중단으로 향후 몇 년간 약 13~23억 달러의 재정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CNN Business: Lab-grown meat could be served up for dinner soon.

What does it taste like?

“실험실 고기”, 식탁에 오른다

- 오늘날 인류가 즐기는 풍부한 육즙의 스테이크와 바삭한 치킨은 동물들을 위협하고 기후 위기를 가속화한다. 2019년 설립된 스타트업 Ivy Farm은 실험실에서 동물 세포를 재생산하여 만들어진 고기가 윤리적, 지구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식단을 보호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 해당 분야의 투자 자금은 지난 2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미 식품의약국(FDA)이 안전성을 검증하면서 실험실 산 고기는 실제 식탁에 한층 가까워졌다.
- 하지만 아직 비용 절감과 대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인공 고기를 대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역시 회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초기 육류 대체는 식물성 육류와의 혼합 형태로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美 백만장자 투자자 “내년 주가 10~15% 하락할것”...
‘산타랠리’ 실종**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 12월 글로벌 증시에 ‘산타랠리’가 사라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49% 하락하는 등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형주 위주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0.9% 떨어졌다. 다우존스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1928년 이후 모든 12월 중 73%에서 상승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S&P 500 지수는 6.4% 하락하는 등 ‘산타랠리’의 공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투자심리 하락은 여러 이유 탓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유지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밝히고 있다. 또 최근 미국 소매매출 감소로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과 비관적 경기 전망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져 경기침체 우려가 더 커졌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글로벌 경기하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